

V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4년 4월

전망과 정책과제

제1장 국내경제동향	5
제2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29
제3장 국내경제전망	41
제4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51

부록

주요경제통계	57
--------------	----

한국경제연구원

편집위원

선임연구위원

허찬국

연구위원

배상근

선임연구위원

김창배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제1장 국내경제동향

1. 실물부문
2. 대외거래부문
3. 물가부문
4. 통화·금융부문

제2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1. 주요국 경제
2. 국제금융시장
3. 원자재가격

제3장 국내경제전망

1. 실물부문
2. 물가부문
3. 대외거래부문
4. 금융부문
5. 향후 우리경제의 위험요인

제4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부록 주요경제통계

제 1 장 국내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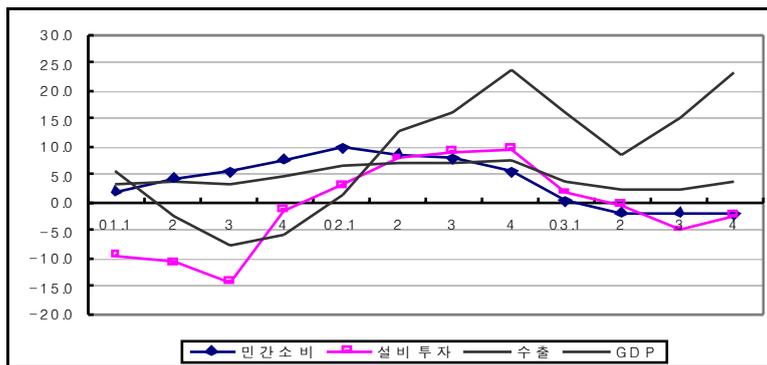
1. 실물부문

수출호조로 종합적인 경기상황은 개선

- 지난 해 하반기 이후 수출증가율 확대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는 상반기의 부진에서 탈피, '03년 3/4분기부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임
-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부문은 '02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총수출(물량기준)은 지난 해 2/4분기 8.4%에서 4/4분기에는 24.0%로 급등
- 수출급등세의 영향으로 실질GDP는 지난 해 2/4분기(2.2%)를 저점으로 3/4분기 2.4%, 4/4분기 3.9%로 증가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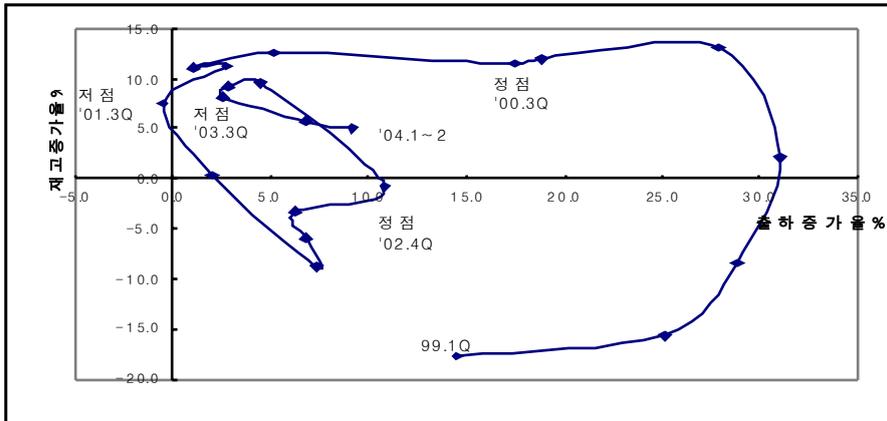
〈그림 1〉 최종수요와 GDP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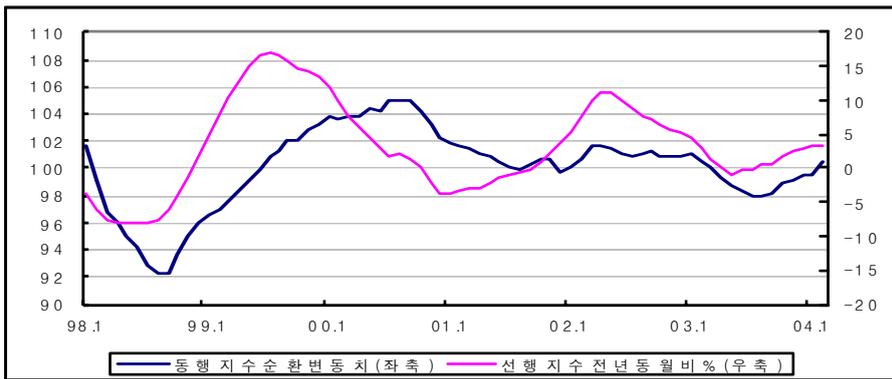
- 출하-재고 순환도 및 경기종합지수 추이로 볼 때에도 현재의 경기는 회복국면의 양상을 보임
- 지난 해 3/4분기 이후 현재까지의 출하-재고 증가율의 추이는 경기회복기(출하증가율은 상승하고 재고증가율은 둔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2〉 출하-재고 순환도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지난 해 8월 이후 상승하고 있으며 선행지수의 전년동월비증가율도 점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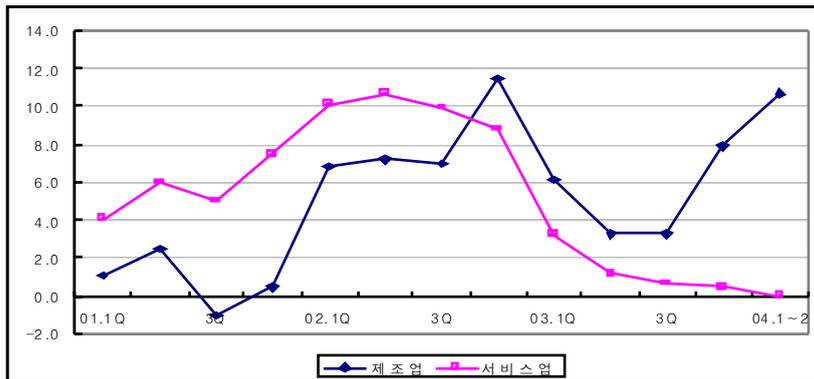
〈그림 3〉 경기종합지수 추이



- 그러나 수출편중형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제조업생산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업 활동은 금년 들어서도 여전히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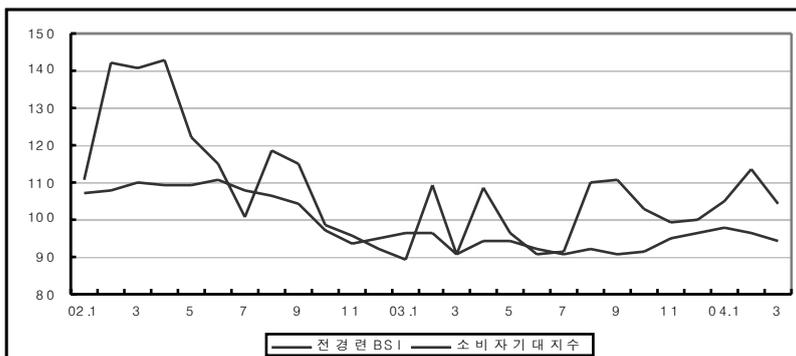
〈그림 4〉 제조업 생산과 서비스업 활동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내수부진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회복도 지연
 - 전경련BSI는 기준치인 100을 전후로 등락 지속
 - 소비자기대지수는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 이하

〈그림 5〉 주요 경제심리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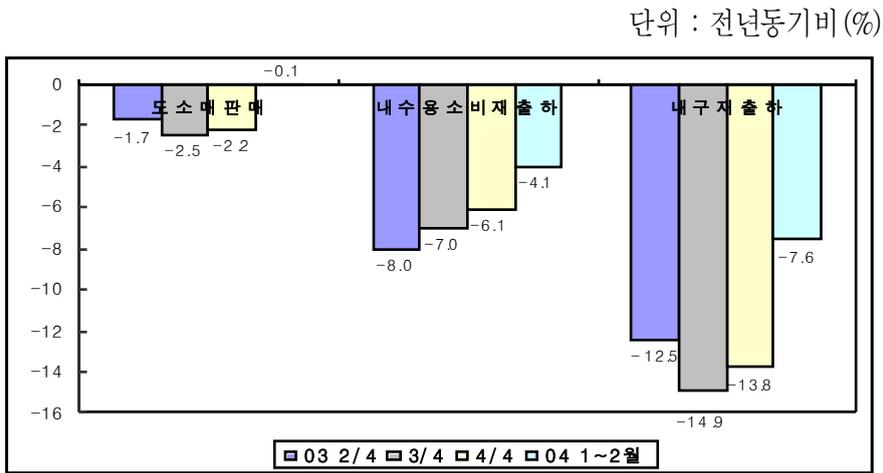


주 : 전경련BSI는 해당월에 조사한 다음달 업황에 대한 기업체들의 전망
 소비자기대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6개월후의 소비자들의 기대심리

소비부진 지속

- 올 1~2월중 일부 소비지표가 개선되었으나 전반적인 소비회복세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도소매판매액이 2월중 전년동월비 2.4%증가했으나 전월비로는 0.4%감소
 - 내수용소비재출하의 부진 지속('04 1~2월중 -4.1%)
 - 2월중 일시적으로 반등했던 백화점매출과 할인점매출이 3월중 다시 감소세

<그림 6> 주요 소비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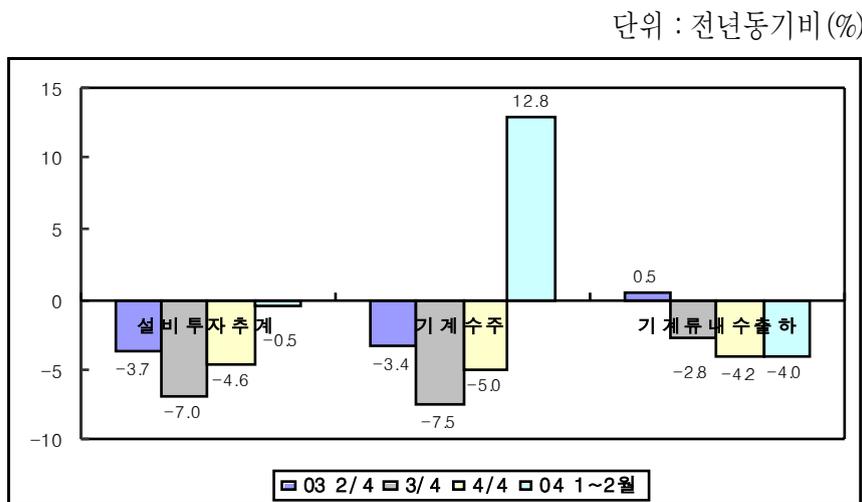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설비투자 부진 완화 조짐

-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감소 폭은 둔화
 - 설비투자(국민계정): 1.9%('03 1/4) → -0.6%(2/4) → -5.0%(3/4) → -2.4%(4/4)

- 설비투자추계(통계청) : -7.0%('03 3/4) → -4.6%(4/4) → -0.5%('04 1~2월)
-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어 설비투자 부진이 점차 개선될 조짐

〈그림 7〉 주요 설비투자 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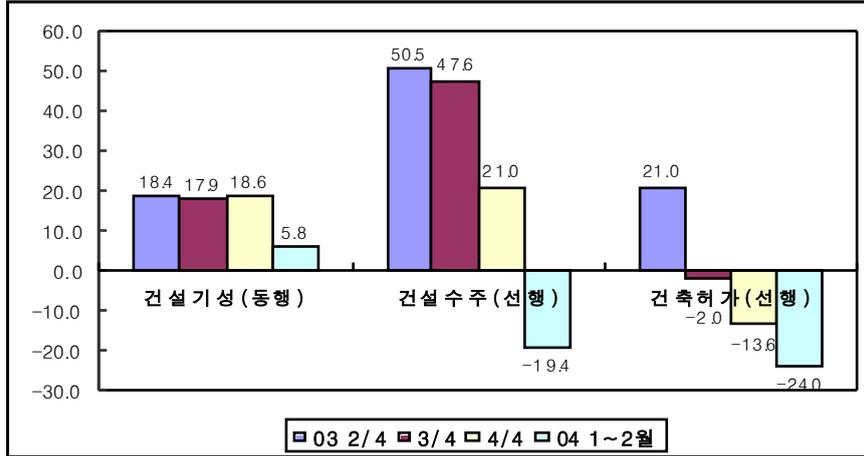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건설투자 증가세 둔화

- 건설투자의 높은 증가세가 올해 들어 크게 둔화
 - 건설투자(국민계정) : 8.0%('03 1/4) → 7.3%(2/4) → 7.9%(3/4) → 7.4%(4/4)
 - 건설기성(통계청) : 17.9%('03 3/4) → 18.6%(4/4) → 5.8%('04 1~2월)
-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증가세도 올해 들어 마이너스로 반전되고 건축허가면적의 감소 폭도 확대되면서 향후 건설투자 증가세 둔화가 지속될 가능성

〈그림 8〉 건설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고용사정, 점진적인 개선추세

-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상승
 - 3월 전체 실업률과 청년(15~29세)실업률은 각각 3.8%, 8.8%로 지난 연말에 비해 0.2%p 상승
 - 3월 실업자는 87.9만명으로 지난 연말에 5.4만명 증가
- 그러나 금년 3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비 2.4% 증가했으며 지난해 12월에 비해 27.5만명 증가
 - 비농림어업 취업자도 전년동월비 3.0%증가

〈표 1〉 고용관련 지표 추이

	2002년	2003년				2004년			
	12월	3월	6월	9월	12월	1월	2월	3월	연말대비
15세이상인구(천명)	37,124	37,226	37,330	37,418	37,506	37,546	37,577	37,608	+102
경제활동인구(천명)	22,754	22,644	23,138	23,031	22,922	22,790	22,906	23,249	+327
취업자(천명)	22,052	21,837	22,383	22,301	22,096	21,936	22,005	22,371	+275
(전년동월비%,%p)	2.0	0.3	-0.6	-0.8	0.2	1.7	2.4	2.4	+2.2
비농림어업(천명)	20,283	19,982	20,231	20,211	20,521	20,447	20,450	20,590	+69
(전년동월비%,%p)	2.2	0.6	0.0	0.0	1.2	2.4	3.0	3.0	+1.9
실업자(천명)	702	807	755	730	825	854	900	879	+54
실업률(%)	3.1	3.6	3.3	3.2	3.6	3.7	3.9	3.8	+0.2
〈15~29세〉	7.0	8.1	7.4	6.6	8.6	8.8	9.1	8.8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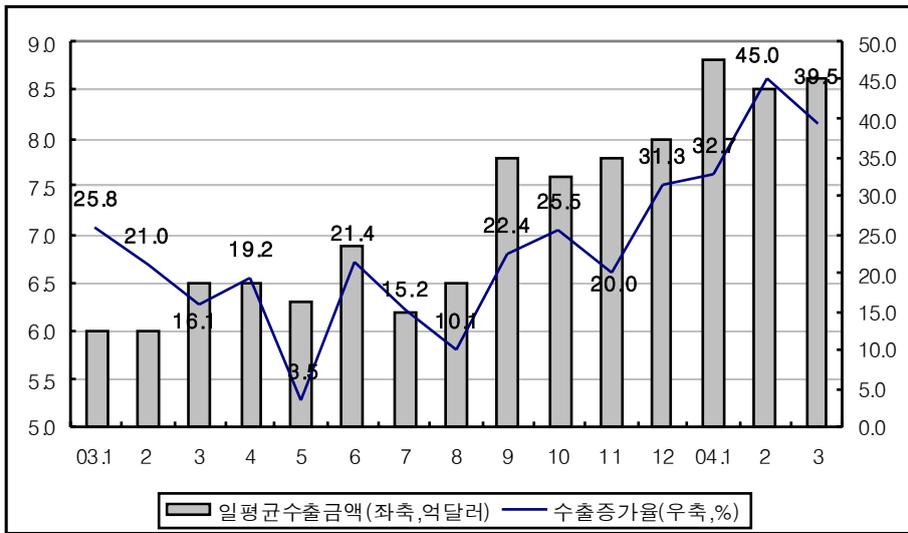
2. 대외거래부문

수출증가세 큰 폭 확대

- 올 1/4분기 수출은 사상 최대규모인 597.9억달러로 전년동기비 38.9% 증가
 - 수출증가율(전년동기비%): 15.0%('03 3/4) → 24.6%(4/4) → 38.9%('04 1/4)
 - 일평균수출액: 2004년 12월 이후 4개월 연속 8억달러대 지속

〈그림 9〉 수출증가율과 일평균수출금액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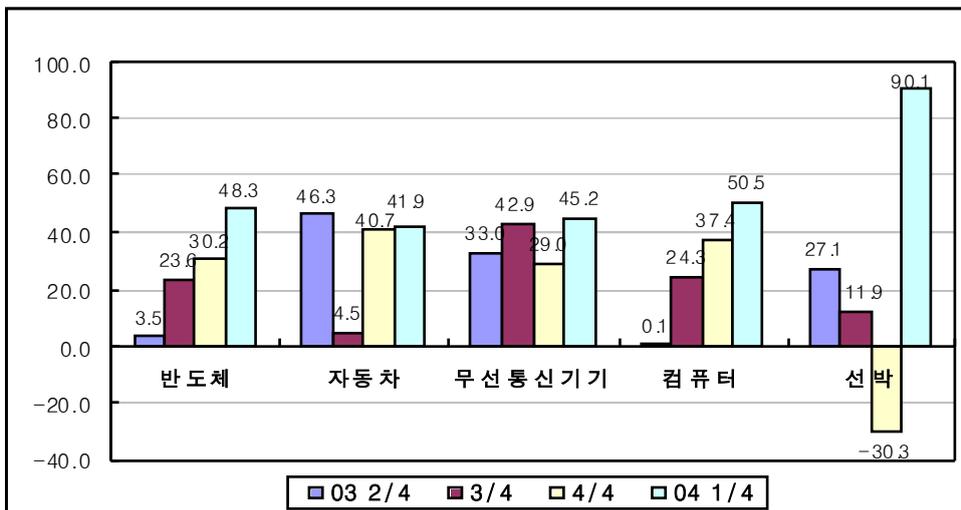
자료 : 산업자원부

- 주요 품목별(04년 1/4분기)로는 무선통신기기 수출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수출의 증가세도 확대

- 무선통신기기는 미국, EU를 중심으로 3세대 단말기(초고속 인터넷과 영상통신이 가능) 수요확대로, 컴퓨터는 LCD모니터와 컴퓨터 부품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
- 반도체는 D램 가격 상승과 디지털 가전수요 증대로 증가세 확대
- 자동차는 내수위축에 따른 업계의 수출증대 노력과 수출차종의 고가화 및 브랜드 이미지 구축으로 미국, EU와 함께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이 확대

〈그림 10〉 주요 품목별 수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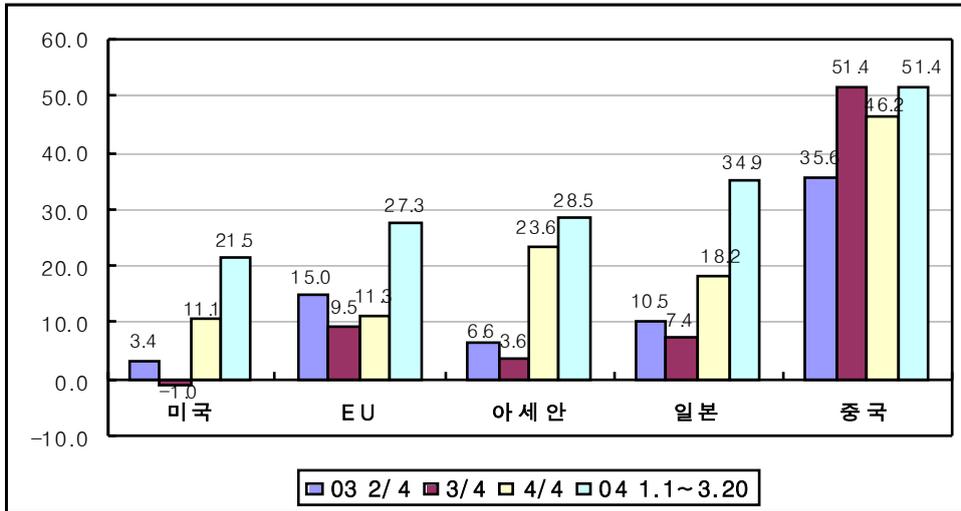


자료 : 산업자원부

- 주요 지역별('04년 1/4분기)로는 중국과 아세안에 대한 수출이 급증세를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일본, EU 등에 선진국에 대한 수출도 4/4분기에 비해 증가율이 약 2배 가까이 급등

〈그림 11〉 주요 지역별 수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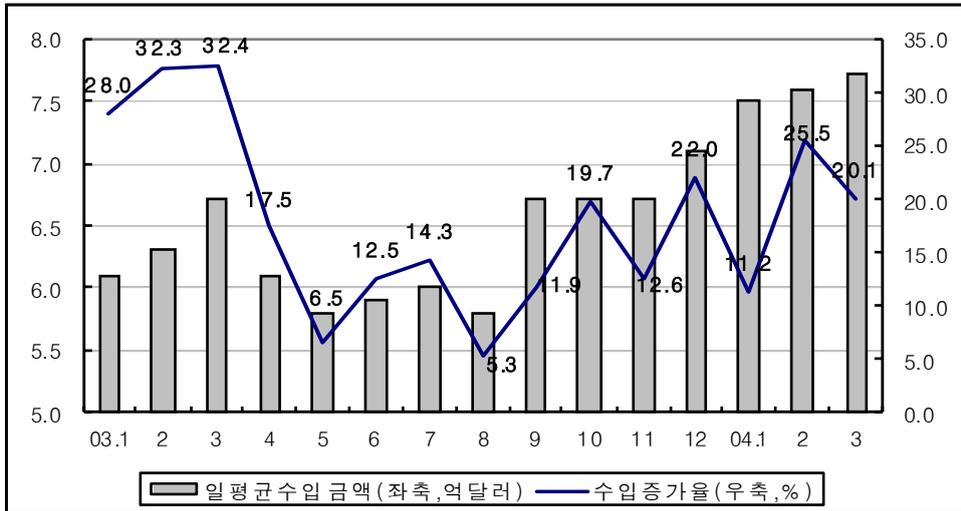
자료 : 산업자원부

수입 : 증가율 소폭 상승

- 수출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수입증가율도 다소 상승
 - 올 1/4분기 수입증가율은 전년동기비 18.9%를 기록 지난 해 4/4분기(18.1%)에 비해 소폭 상승
 - 일평균수입액도 올 1월 이후 3개월 연속 7.5억달러를 상회

〈그림 12〉 수입증가율과 일평균수입금액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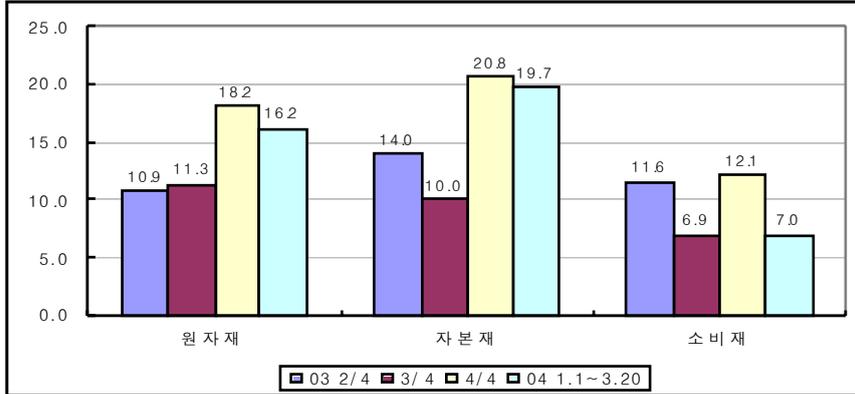


자료 : 산업자원부

- 용도별로는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은 두자리수의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소비재 수입 증가세는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둔화
 - 이에 따라 소비재수입비중이 크게 하락
 - ※ 원자재수입비중: 50.0%('02년)→ 51.8%('03년 1/4)→ 51.9%('04 1.1~3.20)
 - 자본재수입비중: 37.1%('02년)→ 36.0%('03년 1/4)→ 36.9%('04 1.1~3.20)
 - 소비재수입비중: 12.4%('02년)→ 11.2%('03년 1/4)→ 10.3%('04 1.1~3.20)

〈그림 13〉 용도별 수입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자료 : 산업자원부

경상수지 : 1~2월중 54억달러 흑자

- 경상수지는 수출호조로 상품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금년 1~2월중 5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
 - 1~2월중 상품수지는 61.5억달러 흑자를 보였으며 서비스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19.2억달러 적자) 보다 개선된 12.3억달러 적자 시현

〈표 2〉 경상수지 추이

단위 : 억달러

	2003년		2004년		
	1~2월	연간	1월	2월	1~2월
경 상 수 지	-4.5	123.2	23.4	30.6	54.1
상 품 수 지	12.7	221.6	29.8	31.8	61.5
서 비 스 수 지	-19.2	-76.1	-7.7	-4.6	-12.3
소 득 수 지	7.1	6.0	3.5	5.9	9.5
경상이전수지	-5.1	-28.2	-2.2	-2.4	-4.6

3. 물가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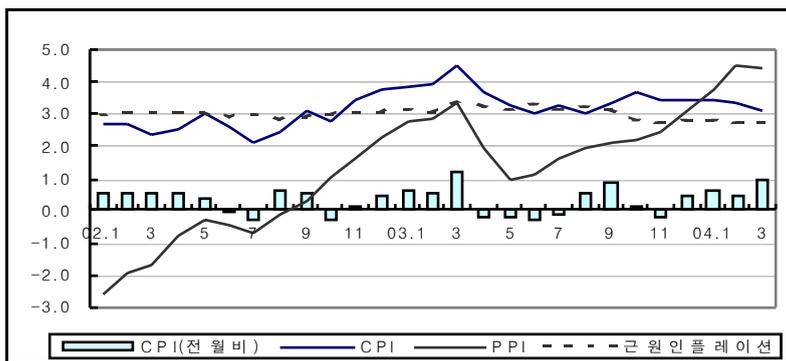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

-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생산자물가의 오름세가 확대되고 소비자물가도 상승
 - 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영향을 직접 받는 생산자물가는 오름세가 큰 폭으로 확대(2~3월중 전년동월비 4%대)
 - 소비자물가의 전년동월비 증가율은 높아지지 않았으나 전월비 증가율은 4개월 연속 상승(올들어 2.1%상승)
 - * CPI(전월비): -0.2%('03 11월) → 0.4%(12월) → 0.6%('04 1월) → 0.4%(2월) → 1.0%(3월)

- 근원인플레이션(농산물및석유류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도 상승세 지속(금년 1~3월중 1.5%증가)
 - 전월비 증가율: 0.4%('04 1월) → 0.1%(2월) → 1.1%(3월)

〈그림 14〉 물가 추이

단위 : 전년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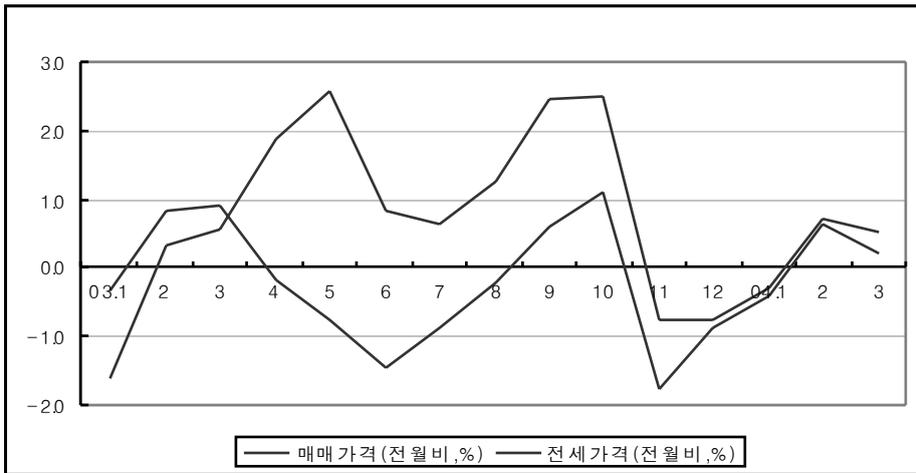


■ 올 2월 이후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다시 상승

- 봄철 이사수요와 주택거래신고제시행(3월 30일)을 앞둔 선수요 영향에 기인

〈그림 15〉 아파트매매 및 전세가격(서울지역)

단위 : 전월비%



자료 :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4. 통화 · 금융부문

작년말부터 5%대 총유동성 증가세 유지

- 작년 상반기부터 완만하게 둔화되기 시작했던 M3의 증가세는 해외부문 통화공급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정부부문의 통화환수로 인해 최근 5%대 초반 지속
- (신)M1 증가율은 투신사 MMF 증가세 지속 등으로 금년에 들어서 점차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신)M2 증가율은 금년에 2%대 증가세 유지

〈표 3〉 주요 통화지표 추이

단위 : 평잔기준, 전년동기대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3월
(신)M1	18.0	26.8	27.9	20.3	16.1	22.5	10.3	5.5	6.6	5.4	6.9	6.0	7.5	8중반
(신)M2	6.9	9.5	12.4	10.9	13.0	11.5	13.1	9.1	6.5	3.3	7.9	2.4	2.6	2후반
M3	9.6	12.1	13.7	12.6	13.2	12.9	12.4	9.6	8.0	5.4	8.8	4.9	5.1	5초반

자료: 한국은행, 2004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

가계부채 증가세의 현저한 둔화

- 2003년 말 현재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은 2002년말 439조원에 비해 불과 1.9%(8.5조원) 증가한 447.6조원에 머물러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
- 2003말 현재 가구당 가계신용잔액은 2,926만원으로 2002년중 612만원 증가에 비해 소폭(2002년말 대비 11만원) 상승
- 가계대출은 전년대비 7.6% 증가한 420조9,383억원을 나타낸 반면에, 판매신용은 작년

7월 특별소비세 인하 등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의 위축으로 인해 전년대비 44.5% 감소한 26조6,292억원 기록

- 예금은행대출은 가계대출 억제조치, 투기지역의 주택담보 인정비율 축소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반면, 농수협외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의 대출 증가폭이 대폭 확대되었고,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일련의 자산건전성 감독강화 등에 따라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 여신전문기관 대출이 전년의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
- 최근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운 신용이 낮은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협동기구에서 대출을 받는 경향 반영

〈표 4〉 형태별 가계신용 잔액 추이

단위 : 10억원, %

	2000년말	2001년말	2002년말	2003년			
				3월	6월	9월	12월
가계신용잔액 (A+B)	266,898.9 (24.7)	341,673.2 (28.0)	439,059.8 (28.5)	439,339.3 (19.3)	439,086.8 (10.5)	439,948.1 (3.7)	447,567.5 (1.9)
	<52,862.9>	<74,774.3>	<97,386.6>	<279.5>	<-252.5>	<861.3>	<7,619.4>
가계대출잔액 (A)	241,068.8 (25.6)	303,519.3 (25.9)	391,119.3 (28.9)	396,753.5 (20.7)	402,565.6 (13.6)	409,557.5 (7.8)	420,938.3 (7.6)
	<49,127.6>	<62,450.5>	<87,600.0>	<5,634.1>	<5,812.2>	<6,991.9>	<11,380.7>
예금은행	107,235.2 (40.5)	156,712.4 (46.1)	222,016.5 (41.7)	227,048.1 (30.1)	236,702.3 (22.9)	245,551.8 (17.0)	253,756.9 (14.3)
	<30,920.6>	<49,477.2>	<65,304.1>	<5,031.6>	<9,654.2>	<8,849.4>	<8,205.2>
신용협동기구 ¹⁾	38,364.7	40,028.1	45,727.0	48,007.3	51,468.7	56,374.5	58,929.4
여신전문기관	33,583.1	43,650.7	57,106.3	54,588.5	46,217.4	39,379.8	37,324.1
판매신용잔액 (B)	25,830.2 (16.9)	38,153.9 (47.7)	47,940.5 (25.7)	42,585.9 (8.3)	36,521.2 (-15.2)	30,390.5 (-31.4)	26,629.2 (-44.5)
	<3,735.3>	<12,323.8>	<9,786.6>	<-5,354.6>	<-6,064.7>	<-6,130.6>	<-3,761.3>
가구당가계신용잔액 ²⁾ (만원)	1,827	2,303	2,915	2,916	2,915	2,921	2,926

자료: 한국은행, 2003년 중 가계신용 동향

주: 1)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2) 가구수는 통계청의 "추계가구" 통계를 이용

3)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는 분기중 증감액

‘신용불량가족’ 및 ‘생계형’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불안 가중

- 2월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는 382만5천명으로 전 국민(2003년 추계, 4,792.5만명)의 8.0%,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2004년 2월, 2,290.6만명)의 16.7% 차지
 - ※ 현재 신용불량자 기준: 연체금액 30만원, 연체기간 3개월 이상
- 경기침체로 인한 근로소득감소 등으로 가계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가계의 채무부담이 확연하게 완화된다고 어렵고 강도 높은 가계대출 억제조치로 인해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에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월말 현재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는 250.7만명으로 전체 신용불량자의 65.5%를 차지하여 신용카드의 남용이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
 - ※ 2003년중 발생한 신용불량자 108만명 중에 90만명이 신용카드 연체도 수반
- 향후 신용불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 상존
 - 작년 6월말 현재 신용불량 미등록자 중 30만원이상 1개월이상 연체자인 잠재 신용불량자가 108.8만명으로서 경기둔화가 지속되면 향후 신용불량자 가능성 제기
 - 현재 4개 이상 신용카드소지자 988만명 중 약 10% 수준인 100만명 가량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추정되어, 만일 향후 어느 한 카드사가 부실화되거나 유동성 부족으로 신용한도를 크게 제한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급증할 가능성 상존

〈표 5〉 신용불량자 추이

단위 : 만명

	00말	01말	02말	03.6말	03.12말	04.1말	04.2말
전체 신용불량자	208	245	264	323	372	377	383
신용카드관련	78(38%)	104(43%)	150(57%)	199(62%)	240(64%)	245(65%)	251(66%)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 2004년 2월말 현재 신용불량정보 관리현황

- 최근 30대미만의 '사치형' 신용불량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생계형' 신용불량자는 증가 추세
 - ※ 20대 신용불량자(천명): 636('03.6월) → 690(9월) → 732(12월)→ 730('04.2월)
 - ※ 10대 신용불량자(명): 5,831('03.6월)→ 5,770(9월)→ 4,471(12월)→ 3,229('04.2월)
- 최근의 30대 여성 신용불량자 급증은 남편이 신용불량자가 됨에 따라 생계를 위해 아내까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신용불량가족' 양산 추세를 반영
 - ※ 30대 여성 신용불량자(천명): 336('03.6월)→ 382(9월)→ 427(12월)→ 448('04.2월)
- 2월말 현재 20대와 30대 신용불량자가 각각 73만명(19.1%)과 117.3만명(30.7%)을 기록하여 전체 신용불량자의 절반 정도 차지
 - ※ 작년말 현재 1,000만원미만 신용불량자가 176.4만명으로 전체의 47.4%를 차지하고 1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137만명)중 1,000만원 미만의 채무자가 105만명
- 금년 2월 Synovate의 전화조사(총 3,919명, 복수응답)에 따르면, 연체대출금 사용처로 생활비(47%), 대출금상환 또는 돌려막기(45%) 등이 차지
 - ※ 작년 8월말 현재 신용회복지원신청자 24,543명중 14,850명(60.5%)이 '생활고'

신용카드사 경영악화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우려

- 2002년 카드사들의 과당경쟁, 정부의 무리한 내수진작책 등으로 2003년에 들어 업종의 성격상 경기동행적인 신용카드사의 자산건전성 및 영업실적의 악화 지속
 - 2003년중 신용카드 전업 8개사가 큰 폭의 영업규모 감소로 인한 수익 저하와 함께 부실자산으로 인한 대손비용의 증가로 10조4,742억원의 당기순손실 시현
 - ※ 비씨카드를 제외한 전 카드사가 적자를 시현했고 특히 LG카드의 당기순손실 5조5,988억원이 전체의 53.5% 수준

〈표 6〉 당기순이익 및 대손충당금 적립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02년중			'03년중			전년대비 증감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당기순이익	8,579	△3,615	4,964	△27,592	△77,150	△104,742	△109,706
(대손상각비)	(14,985)	(35,599)	(50,584)	(54,969)	(81,248)	(136,217)	(85,633)
비씨	356	△102	254	67	△54	12	△241
엘지	4,135	△631	3,504	△7,469	△48,519	△55,988	△59,492
삼성	3,563	1,973	5,536	△6,429	△6,560	△12,988	△18,525
외환	95	△619	△524	△2,773	△11,531	△14,304	△13,781
현대	△232	△1,219	△1,451	△5,454	△762	△6,216	△4,765
롯데	△191	△655	△846	△699	△455	△1,153	△307
우리	814	△2,328	△1,514	△4,098	△9,107	△13,206	△11,692
신한	39	△34	5	△737	△161	△898	△903
계	8,579	△3,615	4,964	△27,592	△77,150	△104,742	△109,706

주 : 국민카드 제외 8사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2003년 신용카드사 경영실적

〈표 7〉 8개 전업 신용카드사 총채권 연체현황

단위 : 억원

	'02말	'03.3말	'03.6말	'03.9말	'03.12말
총채권(A)	830,774	787,564	701,407	634,185	549,895
연체채권(B)	49,535	74,397	67,077	71,221	77,276
연체율(B/A)	5.96	9.45	9.56	11.23	14.05
비씨	7.53	11.64	7.48	6.09	8.78
엘지	5.86	9.20	9.97	10.65	17.90
삼성	4.91	8.79	8.19	9.65	10.59
외환	6.64	11.86	9.67	8.08	12.19
현대	13.09	17.27	9.48	9.42	8.05
롯데	20.08	23.70	9.98	9.97	3.47
우리	6.32	6.18	14.21	26.42	22.31
신한	5.25	7.06	7.31	7.93	6.14
대환대출	59,145	88,287	114,556	166,942	160,840

주 : 관리자산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2003년 신용카드사 경영실적

- 자산축소 경향으로 인한 총채권 규모의 감소,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가계소득감소로 연체 채권의 회수실적 미흡, 돌려막기가 어려워진 다중채무자의 연체 유입 등으로 연체채권비율이 2002년말 6.0%로부터 금년 2월말 현재 15.4%의 연체율을 시현하여 상승세 지속
- 신용카드사의 적극적인 대환대출로 인해 금년 2월말 현재 17조5,474억원의 대환대출 잔액을 기록하였고 2002년말 5조9,145억 원에 비해 3배가량 급증

하락하던 시장금리가 최근 상승세로 전환

- 작년 10월 초순 이후 국내외 경기회복기대 등으로 상승했던 장기시장금리는 금년 1월말을 고비로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4월 들어 미국경제지표 등이 개선되는데 힘입어 상승세 시현
- 미국 등 선진국경제를 중심으로 금년 세계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월별 사상최고규모를 경신하고 있는 수출 호조세 등이 금리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내수경기회복 지연 등이 금리하락요인으로 작용

〈표 8〉 주요 금리 추이

단위: 기말, 연리 %p

	2000	2001	2002	2003				2004			
	12월	12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1월	2월	3월	4월16
콜(익일) (A)	6.01	4.00	4.52	4.25	4.09	3.75	3.95	3.77	3.77	3.74	3.75
CD(91일)	6.87	4.86	4.90	4.7	4.30	3.89	4.36	4.19	4.00	3.90	3.91
CP(91일)	7.26	5.07	5.03	5.27	4.67	4.11	4.55	4.48	4.26	4.12	4.14
국고채(3년) (B)	6.70	5.91	5.11	4.62	4.16	4.11	4.82	4.94	4.78	4.50	4.60
회사채(3년) (C)	8.13	7.04	5.68	5.38	5.45	5.05	5.58	5.74	5.56	5.30	5.34
B-A(%p)	0.69	1.91	0.59	0.37	0.07	0.36	0.87	1.17	1.01	0.76	0.85
C-A(%p)	2.12	3.04	1.16	1.13	1.36	1.30	1.63	1.97	1.79	1.56	1.59
C-B(%p)	1.43	1.13	0.57	0.76	1.29	0.94	0.76	0.80	0.78	0.80	0.74

자료: 한국은행, 일일주요금리동향 (www.bok.or.kr)

자금사정 : 기업의 자금조달 회복세, 최근 주춤

- 금년 1/4분기 기업의 자금조달은 회사채순발행의 감소에도 불과하고 은행대출 및 CP순발행 등의 증가세를 중심으로 작년 4/4분기에 비해 크게 회복되고 있으나 최근 기업자금조달의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
 - 3월중 중소기업 은행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대기업 은행대출 및 CP순발행이 감소세 시현
 -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도 작년에 비해 미약한 가운데, 회사채는 장기시장금리의 하락에 따른 기업의 장기자금 확보 등으로 인해 3월부터 순발행으로 전환

〈표 9〉 기업*의 자금조달 추이

단위 : 기간중 증감, 조원

	2002년	2003년						2004년			
		연중	1/4	2/4	3/4	4/4	12월	1/4	1월	2월	3월
은행대출**	37.2	32.1	16.4	11.0	7.4	-2.7	-8.8	8.0	6.6	1.4	0.1
(대기업)	0.1	-2.9	1.8	-1.0	0.1	-3.8	-4.4	1.7	2.7	-0.5	-0.5
(중소기업)	37.1	35.0	14.7	11.9	7.3	1.1	-4.4	6.3	3.9	1.8	0.6
회사채순발행	-8.1	-4.0	-1.0	-1.0	-3.1	1.2	-0.1	-1.7	-1.6	-0.7	0.6
CP순발행***	-4.4	-2.0	2.5	-3.7	3.1	-3.9	-3.7	2.3	3.3	0.2	-1.2
주식발행	3.9	2.8	0.6	0.4	0.8	1.1	0.5	0.5	0.2	0.1	0.2
계	28.7	28.9	18.4	6.6	8.2	-4.4	-12.0	9.2	8.5	1.0	-0.4

주 : * 금융기관 제외

** 신탁계정 포함

*** 증권사 및 은행증권 중금계정(우리은행 중금계정 제외) 기준

자료 : 한국은행, 2003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

국내 주가는 상승 추세

- 금년 들어 국내주가는 세계경제회복, 수출호조세, 미국주가 상승, 일부의 작년 4/4분기 국내경기저점론,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 등으로 상승세 지속
- 종합주가지수는 1/4분기 국내기업실적 호전, 미국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4월 12일 연중 최고수준인 918포인트까지 상승하였다가, 미국정책금리의 조기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주가와 함께 국내주가가 동반하락

〈표 10〉 우리나라 및 미국의 주가 추이

	04.1말	2말	3말	4/6	4/7	4/8	4/12	4/13	4/14
종합주가지수	848.50	883.42	880.5	906.19	909.93	916.86	918.86	917.63	916.31
코스닥지수	441.45	428.68	434.16	455.37	457.68	460.53	460.37	454.43	454.20
미국(다우존스)	10,488	10,584	10,357.70	10,570.81	10,480.15	10,442.03	10,515.56	10,381.28	10,377.95
미국(나스닥)	2,066	2,030	1,994.22	2,059.90	2,050.24	2,052.88	2,065.48	2,030.08	2,024.85

자료 : 한국은행, 2004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 일별 주요 국제금융 동향

원화가치의 완만한 상승 추세

- 수출호조세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확대, 미국 달러화 약세 기조, 외국인 순매수 경향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환율이 3월말 1,140원대로 급락하기도 했으나,
- 미국 정책금리의 조기인상 가능성 제기, 수출호조세를 지속시키기 위한 정부의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의지 표명 등으로 원/달러환율이 다소 상승하여 4월 16일 현재 전년말 대비 2.73% 절상된 1,160.1원 기록

〈표 11〉 원/달러 환율 추이

단위 : 원, %

	01년말	02년말	03년말	04년 1월	2월	3월	4월 16일
원/달러환율	1,313.50	1,186.20	1,192.60	1,173.70	1,176.20	1,146.60	1,160.10
(전년말 대비)	3.73	-9.69	0.54	-1.58	-1.38	-3.86	-2.73

주 : 종가 기준

자료 : 한국은행, 통계DB

제 2 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1. 주요국 경제

미국 : 금년 4%대의 회복세 전망

- 지난 해 3/4분기 GDP성장률이 전기대비연율로 8.2%를 기록한 미국경제가 4/4분기(전기대비 연율 4.1%)에도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보임
 - 개인소비(2.6%)가 전분기(6.9%)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나 여전히 견조한 증가세를 보인 데다 민간설비투자(10.0%)와 민간주택건설(10.6%)도 높은 성장세를 지속
 - 수출(19.1%)이 수입(11.3%)보다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순수출도 개선
 - 이에따라 2003년 경제성장률이 3년만에 잠재성장률 수준인 3%대로 회복.
- 금년 들어서도 미국경제의 확장세는 지속
 - 1~2월중 산업생산이 설비투자와 주택경기의 호조로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가 3월의 감소세(전월비 -0.2%)에도 불구하고 1/4분기 전체로는 4/4분기와 비슷한 증가세를 시현
 - 제조업 가동률은 2003년 10월 이후에 꾸준한 증가세

- ISM지수가 5개월 연속 60을 상회
- 실업률은 10월이후 하락하여 올해에는 5.6~5.7%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규실업수당 청구자수도 고용안전 기준치인 40만명을 하회하는 수준을 지속

〈표 12〉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전기대비%, 만명

	2002년	2003년				연간	2004년		
	연간	1/4	2/4	3/4	4/4		1월	2월	3월
실질GDP성장률 ¹⁾	22	2.0 (21)	3.1 (24)	8.2 (36)	4.1 (4.3)	31			
개인소비 ¹⁾	34	2.5	3.3	6.9	2.6	31			
민간설비투자 ¹⁾	-28	0.5	8.0	17.6	10.0	52			
수출 ¹⁾	-24	-20	-1.1	9.9	19.1	19			
수입 ¹⁾	33	-68	9.1	0.8	11.3	37			
산업생산	-0.6	0.2	-1.0	0.9	1.3	0.2	0.7	0.8	-0.2
제조업가동률	73.9	73.5	72.7	73.2	74.1	73.4	74.6	75.2	
소매판매액	3.0	1.5	1.3	2.8	0.9	5.6	0.2	0.6	1.8
CPI상승률	1.6	2.2	2.2	2.2	1.9	2.3	1.9	1.7	1.7
경기선행지수 ²⁾	110.9	110.7	111.4	113.1	114.2	112.3	115.1	115.1	
실업률	5.8	5.8	6.1	6.1	5.9	6.0	5.6	5.6	5.7
신규실업수당청구자수	40.4	40.5	43.3	40.5	36.8	40.3	34.7	35.2	34.0
소비자신뢰지수 ³⁾	96.6	68.9	82.7	78.6	88.6	79.6	96.4	87.3	88.3
ISM제조업지수 ⁴⁾ (기준치=50)	52.4 (55.1)	49.7 (52.5)	48.9 (56.4)	54.1 (63.2)	60.6 (60.3)	53.3 (58.1)	63.6 (65.7)	61.4 (60.8)	62.5 (65.8)

주 : 1) 전기대비연율, 괄호안은 전년동기대비 2) Conference Board(1996=100)

3) Conference Board(1985=100)

4) 괄호안은 비제조업 지수임.

자료 : 미 상무부, 노동부, 연방준비위원회, 공급관리협회(ISM)

■ 2004년 성장률은 4.0%대로 높아질 전망

- 테러 위협과 가솔린 가격 상승세 등으로 2004년 2월 이후 소비자신뢰도가 소폭 하락 하였으나 노동시장이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어 소비심리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기대
- 개인소비지출이 조세환급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지속하고, IT관련 신규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업설비투자의 호조가 예상됨에 따라 성장률은 4%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일본 : 경기회복 지속 전망

■ 지난해 4/4분기 실질 GDP는 전기대비 1.6%(연율 6.4%) 증가, 8분기 연속 성장 지속

- 4/4분기 총수출이 전분기(3.2%)에 비하여 증가세(4.2%)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설비투자의 증가(전기대비 5.1%)에 힘입은 데 기인
- 민간소비의 전기대비 증가율도 3/4분기(0.5%)보다 0.3%p 상승

■ 올해 1~2월 중에도 회복세 지속

- 광공업생산의 전년동기비 증가율이 꾸준히 상승
- 소매판매액이 연속 2개월 플러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은 5.0%로 하락

〈표 13〉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2년	2003년				200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실질GDP성장률 ¹⁾	-0.4	0.6 (2.8)	0.8 (2.3)	0.6 (2.0)	1.6 (3.4)	2.7		
민간소비 ¹⁾	1.4	0.4	0.3	0.5	0.8	1.1		
민간설비투자 ¹⁾	-7.1	2.3	4.4	-0.2	5.1	8.8		
수출 ¹⁾	8.0	1.3	1.6	3.2	4.2	9.9		
광공업생산	-1.3	5.3	2.2	0.8	4.1	3.2	4.9	6.9
소매판매액	-3.9	-1.3	-2.6	-2.3	-1.2	-1.8	1.0	0.9
민간기계수주	-12.0	10.6	9.5	6.3	13.8	10.7	-3.0	4.9
실업률	5.4	5.4	5.4	5.2	5.1	5.3	5.0	5.0
소비자물가	-0.9	-0.2	-0.2	-0.2	-0.3	-0.3	-0.3	0.0

주 : 1) 전기대비, 괄호안은 전년동기비,
 자료 :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일본은행 등

■ 금년에도 일본 경제의 회복세는 지속될 전망

- 미국 등 해외경기 회복에 힘입어 소재 및 부품, 자본재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
- 수출증가에 따른 기업수익 증대로 설비투자 증가가 예상
-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개인소비 회복세 지속 전망
- 최근 S&P사는 일본 경제가 수출 및 설비투자의 증가로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 에서 '안정적(Stable)'으로 상향조정

■ 다만 엔화 강세에 따른 수출둔화 그리고 경기회복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 등이 경기회복

지속여부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이들 변수가 현재화된다면 경기회복은 지연될 가능성도 있음

유로지역 : 2004년 경기회복 기대

- 유로지역의 경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개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2003년 3/4분기 이후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
 - 제조업구매자관리자지수(PMI)가 올 1~3월 중 기준치(50.0)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고, 독일의 Ifo경기지수와 프랑스의 INSEE지수도 지난 해 보다 개선.
 - 유로지역의 GDP는 지난 해 3/4분기(전기대비 0.4%)에 이어 4/4분기에도 전기비 0.3% 증가
 -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가로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전된데 기인
 - 올해 들어서는 생산은 감소한 반면 소매판매는 증가하는 등 경제지표의 혼조세로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임

〈표 14〉 EU의 주요경제지표

단위: 전기대비(%)

		2002년	2003년				200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3월
유로 지역	GDP성장률 ¹⁾	0.9	0.0 (0.7)	-0.1 (0.1)	0.4 (0.3)	0.3 (0.6)	0.4			
	산업생산 ²⁾	-0.5	0.1	-0.3	0.6	0.8	0.4	-0.4		
	소매판매	-0.1	0.0	0.1	-0.1	-0.2	0.2	2.3	-0.8	
	실업률	8.4	8.7	8.8	8.8	8.8	8.8	8.8	8.8	
	CPI상승률 ³⁾	2.3	2.3	1.9	2.1	2.1	2.3	1.9	1.6	1.7
	PMI지수	49.8	49.3	47.1	49.1	52.0	49.0	52.5	52.5	53.3
독일	GDP성장률	0.2	-0.2	-0.2	0.2	0.2	-0.1			
	산업생산 ²⁾	-1.4	0.5	-0.7	-0.1	2.3	0.2	0.5	-0.7	
	소매판매	-2.1	0.5	0.0	-1.2	-0.6	-1.0	1.5	0.3	
	CPI상승률 ³⁾	1.4	1.2	0.9	1.0	1.2	1.1	1.2	0.9	1.1
	실업률	9.8	11.2	10.6	10.6	10.5	10.5	10.2	10.3	10.4
	Ifo경기지수 ⁵⁾	89.5	88.5	89.5	92.5	96.2	91.7	97.5	96.4	95.4
프랑스	GDP성장률	1.2	0.0	-0.4	0.4	0.5	0.2			
	산업생산 ²⁾	-1.3	0.1	-0.6	0.6	1.2	-0.3	-0.5	0.8	
	소매판매	1.2	1.8	-0.6	0.6	1.2	1.8	3.3	0.0	
	CPI상승률 ³⁾	1.9	2.4	1.9	2.0	2.2	2.1	2.0	1.8	1.9
	실업률	9.0	9.2	9.3	9.4	9.5	9.5	9.6	9.6	
	Insee지수 ⁶⁾	97	97	92	92	93	95	102	103	104

주: 1) ()내는 전년동기대비 2) 건설업 제외 3) 전년동기대비 4) 1995=100

5) 기준치=50, 제조업지수 6) 1991=100 7) 기준치=100

자료: 유로통계청, 독일연방통계청, Ifo 경제연구소, 프랑스통계청 등

- 2004년에는 세계경제 회복과 동조하면서 유럽경제는 약 2%내외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의 경기회복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지난 해 하반기 이후의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 그리고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들이 재정적자를 무릅쓰고라도 경기부양 조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금년 상반기 중 EU에 신규 가입하는 동구국가들이 역내교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독일의 장기 경기침체 징후라든가 신규 동구 회원국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EU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음.

중국 : 성장률 7~8%대로 소폭 둔화 전망

- SARS충격으로부터 벗어난 중국경제는 소비 및 투자의 빠른 증가와 수출호조로 실질 GDP가 3/4분기 9.6%에서 그리고 4/4분기에는 9.9%로 확대
 - SARS의 영향으로 둔화되었던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증가율이 3/4분기이후 다시 증가세
 - SARS는 수출과 고정자산 투자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올해 들어서도 수출호조가 지속되면서 고성장이조가 이어지고 있음

〈표 15〉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2년	2003년				200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3월
GDP성장률	8.0	9.1	6.7	9.6	9.9	9.1			
산업생산	12.6	17.2	15.2	16.6	17.7	16.7	7.2	23.2	19.4
소매판매	8.8	9.2	6.8	9.7	10.3	9.0	11.8	9.2	
고장자산 투자 ¹⁾	17.4	31.6	32.8	31.4	28.4	28.4	-	53.0	
CPI상승률	-0.8	0.5	0.7	0.8	2.7	1.2	3.2	2.1	
M2상승률	16.8	18.5	20.8	20.7	19.6	19.6	18.1	19.4	
수출(억달러)	3256	864	1039	1174	1308	4358	357	342	459
증가율	(22.1)	(33.5)	(34.3)	(29.7)	(40.5)	(34.7)	(19.8)	(39.5)	(42.9)
수입(억달러)	2953	874	985	1128	1144	4131	357	420	464
증가율	(21.2)	(52.6)	(40.5)	(30.8)	(35.3)	(33.2)	(15.2)	(77.0)	(42.8)

주 : 1) 누계기준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2004년 중국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보다 낮은 7.5%~8%대로 둔화될 전망

-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수출이 두 자리수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고성장 추세는 지속될 전망
- 내부적으로 재정적자를 통한 경제부양정책도 경제성장의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음. 산사담 건설과 서부대개발 등에 대규모 정부자금이 투입되어 경제성장을 자극
- 그러나 일부 업종의 투자과열, 인플레이 조짐 대두에 따라 지난 해까지의 적극적 성장지원 정책에서 안정성장 정책으로 전환한 중국정부는 금년도 경제성장률 7%로 하향조정
- 또한 중국의 수출급증과 선진국의 대중국 무역적자의 확대 등에 따른 선진국들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은 지속될 전망. 하반기 이후 환율 변동폭 확대를 통해 위안화가 소폭 절상된다면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

2. 국제금융시장

환율 : 달러약세 기조 지속

- 올해 들어 미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엔화에 대해서는 일본의 시장개입에 따라 등락
 - 유로화에 대해서는 ECB의 금리인하 가능성, 유로지역의 외국인투자자금 유출가능성 및 경상수지 흑자 축소 등으로 강세
 - 엔화에 대해서는 3월 초까지는 일본의 외환시장개입으로 강세를 보였으나 중순 이후 외환시장 개입 자제 및 일본 경제의 회복 기대감으로 다시 약세
- 달러화 약세기조 지속 전망
 - 미국의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정 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가 달러약세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 중동지역에서의 지정학적 위기감 고조 등도 달러화의 하락요인으로 가세
 - * 2004년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5%에 이르는 5,800억달러, 재정적자 GDP의 4%에 이르는 4,750억달러 전망
 - 그러나 유로화 강세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을 우려, ECB가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유로화에 대한 달러강세가 지속될 가능성
 - * Deutch Bank, Lehman Brothers 등은 ECB가 2/4분기중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할 것으로 전망

〈표 16〉 엔화 및 유로화 환율추이

	2001년말	2002년말	2003년			2004년말			
			10월말	11월말	12월말	1월말	2월말	3월말	4월19일
달러/유로	0.88	1.05	1.16	1.20	1.26	1.25	1.25	1.23	1.20
엔/달러	131.38	118.52	108.95	109.32	106.95	105.58	109.50	103.88	107.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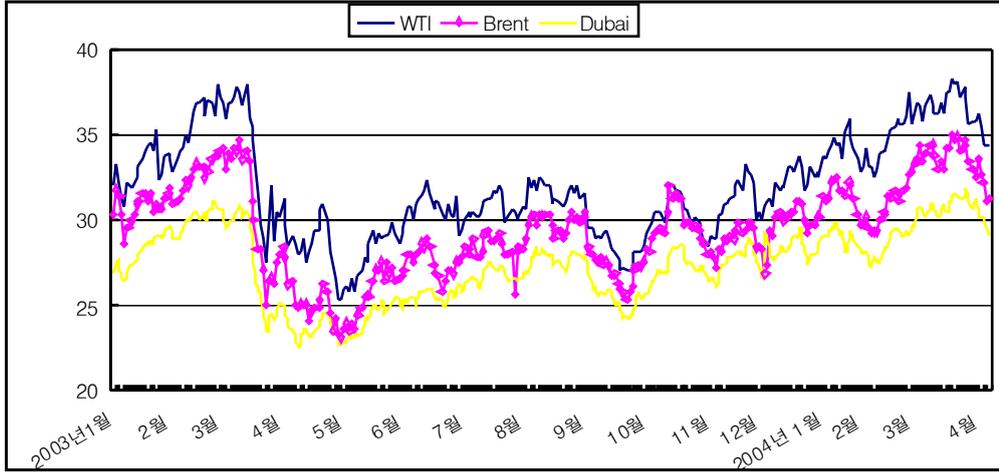
3. 원자재가격 : 국제유가

국제유가 : 수급불안 우려로 단기적으로 고유가 지속

- 수급불안으로 작년 9월이후 상승세가 이어지며 배럴당 35\$(WTI기준)전후의 고유가 지속
 - 미국 원유재고 여전히 낮은 수준, 올해에 특히 상업용 휘발유의 재고가 크게 떨어지면 서 고유가 상황 지속
 - 중국의 고성장 지속과 세계경제 회복세로 석유수요 증가
 - OPEC의 감산결정 이행 확인(3월 31일)으로 수급불안 우려 고조
- 고유가의 지속요인인 높은 원유수요와 중동정국의 변동성이 조만간 해소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하반기 유가 급락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연초에는 세계경제회복에 따른 원유수요 증대에도 불구하고 OPEC 회원국의 소극적인 감산의지, 러시아 등 비OPEC회원국들의 증산 그리고 이라크의 원유생산 확대 등으로 원유수급이 안정되면서 2004년 유가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최근 이라크 사태의 악화, 하마스 지도자 야신 암살 등에 따른 중동지역의 긴장 고조와 테러위협이 유가전망에 중요 변수로 대두됨. 현재로서는 이와같은 불안요인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고유가 상황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

〈그림 16〉 국제 원유가격 추이

단위 : \$/배럴



제 3 장

국내경제전망

1. 실물부문

수출호조와 기술적 반등으로 5.0% 성장 전망

- 전체적으로 우리경제는 올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나 작년의 3.1%에 비해 높은 5%의 성장이 예상된다.
 - 첫째, 수출증가폭이 전반적인 세계경제회복세에 힘입어 작년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의 경우 수출호조는 상당부분 대중국 수출증대에 기인하였으나 2004년 들어 중국과 더불어 미국 등 중국외 지역으로의 수출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미국, 일본의 경기회복이 가시화될수록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임
 - 두 번째, 금년 하반기 이후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문이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이나 이는 회복세가 뚜렷하기 때문보다도 2003년에 건설투자를 제외한 소비, 투자가 저조했던 것에 비해 높아 보이는 기술적 반등에 기인한 것임.
- 이런 전체적인 모습은 최종수요항목별 기여도를 나타낸 <표 17>에서 쉽게 볼 수 있음.
 - 2002년 전체 성장이 내수항목들의 증가에 의해 설명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2003년의 3.1% 성장은 순수출 증가 (2.8%)에 의해 대부분 설명됨.

- 올 해의 예상되는 5%의 성장에는 순수출 (2.5%)과 내수증가 (2.5%)가 비슷하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반기별 추세를 보면 하반기 증가세가 내수항목 증가세에 힘입어 상반기 보다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이런 추세는 전분기 대비 성장률 추이에서 명확히 나타남.

〈표 17〉 총수요 주요항목의 GDP성장 기여도 (%p)

년도	민간소비	투자		수출	수입	순수출	GDP
		설비	건설				
2002	4.3	0.8	0.9	5.1	-5.3	-0.2	7.0
2003	-0.8	-0.2	1.3	6.4	-3.6	2.8	3.1
2004	1.0	0.5	0.3	8.3	-5.7	2.5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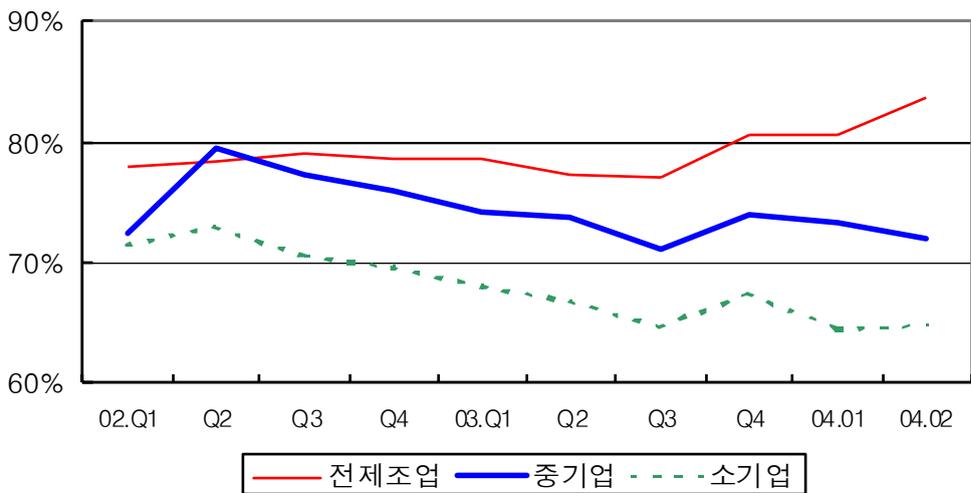
2004년 본원 전망치

- 작년과는 달리 민간소비와 투자 각각 1.7%와 3.1% 늘어 순증을 기록할 것이나 증가세는 전체 GDP 증가율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의 더딘 회복에는 지지부진한 고용사정과 그에 따른 소득증가 둔화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런 추세가 반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임.
 - 제조업 가동률이 지난 해 말부터 80%에 이르면서 조만간 설비투자가 늘 것이라는 관측이 많음. 하지만 이런 가동률 상승추세가 수출집중도가 높은 대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전체 설비투자의 향방과 관련이 작을 수 있음.
 - 제조업의 경우 전체 가동률과 중소기업의 가동률이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향후 설비투자 향방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함.

사업장 규모별로 불균형한 가동률과 투자전망

- <그림 17>는 전체 제조업 가동률과 중소기업 가동률의 추세를 예시하고 있음. 우선 규모가 작을수록 가동률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반대로 높은 가동률이 대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대규모 사업장의 특징은 인력을 적게 쓰고 생산과정의 자동화가 높다는 것임.
 - 2000년 이후 5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제조업 생산량의 40~45%를 생산했는데 고용 비중은 20%를 하회하였음. 이런 조합은 생산과정 자동화를 의미함.

<그림 17> 사업장 규모별 제조업 가동률



주: 중기업 (50인~299인), 소기업 (5인~49인)

- 이를 바탕으로 최근 가동률 추세가 향후 투자와 고용에 주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 첫째, 아직까지 중소규모의 많은 사업장의 가동률은 과거에 비해 낮은 편임. 따라서 이

들 사업장에서의 설비투자압력은 크지 않기 때문에 최근 전체 가동률 추이가 광범위한 설비투자증대를 가져오리라는 기대는 근거가 취약함.

- 두 번째, 향후 고용상황과 관련해서도 상대적으로 고용흡수능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 세 번째,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제조업의 고용부진에 기인하여 전체 소득증대가 더딜 것으로 예상됨. 이는 또한 소비회복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2. 물가부문

수입물가 불안의 여파로 물가상승세 3% 넘을 전망

-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제유가와 각종 원자재가격은 그 동안 높게 유지되었던 원화 환율에 의해 증폭되어 국내물가 상승압력 요인으로 작용해왔음. 하지만 연중 가파른 내수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제유가 등이 안정세를 보이면 국내물가도 일정 시차를 두고 낮아질 전망.
- 2003년 10월 이후 4개월 동안 급등한 수입물가 증가세가 최근 3%대 (전년동기대비)로 안정되었으나 국내물가지수에 미치는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생산자물가는 4/4분기까지 4%대의 증가세를 보일 것이나 소비자물가 증가세는 3%대에 머물 전망.

3. 대외거래부문

수출호조로 경상수지 흑자 2003년보다 더 클 전망

- 올해 세계교역량증가가 작년말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7.5%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미국 등의 본격적 경기회복으로 연중 건조한 수출여건이 예상되어 원유가 상승 등으로 수입부담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경상수지가 예상됨.
- 올해 들어 對중화권 수출급증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부진했던 對미국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음.

4. 금융부문

장기금리 : 향후 경기회복기대로 완만한 상승 예상

-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내수회복 지연 등의 투자불안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미국경제 및 세계경제의 호전전망, 중국경제의 성장세 지속 등에 따른 대외경제여건 개선과 함께, 수출호조세 지속, 향후 국내경기회복 기대 등에 따라 투자심리가 다소 개선되어 장기금리는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장기금리는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기준으로 금년 상반기에 5.7%, 하반기에 5.9%로 점차 높아져 연평균 6.0%를 나타낼 전망

원/달러 환율 : 완만하게 하락할 전망

- 미국의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적자 확대 등에 따라 미국 달러화 약세가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금년 미국경제의 높은 성장세, 금년내 정책금리 인상 등이 예상되어 달러화 약세 폭은 매우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원/달러 환율은 작년 연평균 1,191.7원에서 금년 연평균 1,138.1원으로 완만하게 하락 (원화가치의 상승)할 전망

〈표 18〉 2004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2002년	2003년				200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국내총생산	7.0	3.7	2.2	2.4	3.9	3.1	4.8	5.0	5.1	4.9	5.0
계절조정(전월비%)	6.9	-0.3	-0.1	1.6	2.7	3.1	0.4	0.1	1.7	2.6	5.0
총소비	7.6	0.9	-0.8	-0.9	-1.1	-0.5	-0.1	2.0	3.1	3.6	2.2
민간소비	7.9	0.3	-1.8	-1.9	-2.2	-1.4	-0.9	1.6	2.9	3.5	1.8
고정자본형성	6.6	4.6	3.7	2.6	3.6	3.6	0.8	2.1	4.5	4.0	3.0
설비투자	7.5	1.9	-0.6	-5.0	-2.4	-1.5	-1.2	2.5	9.9	9.1	5.0
건설투자	5.3	8.0	7.3	7.9	7.4	7.6	2.5	1.7	1.2	0.9	1.5
총수출	13.3	15.9	8.4	14.9	23.1	15.7	28.9	21.4	16.6	8.4	18.1
총수입	15.2	14.2	5.2	7.7	11.7	9.7	15.6	16.7	14.1	11.6	14.4
생산자 물가	-0.3	3.0	1.3	1.9	2.6	2.2	4.2	4.8	4.9	4.0	4.5
소비자 물가	2.8	4.1	3.4	3.2	3.5	3.5	3.3	3.4	3.7	3.5	3.5
경상수지(억달러)	53.9	-15.2	24.3	37.6	76.6	123.2	62.0	25.4	24.9	20.6	138.1
상품수지(억달러)	147.8	12.4	57.6	68.2	83.4	221.6	86.6	64.3	56.2	47.5	254.7
수출(억달러)	1634.1	445.4	465.2	490.5	575.3	1976.4	604.1	581.3	585.9	627.2	2398.5
증가율 (%)	7.9	23.0	13.9	19.2	27.2	20.9	35.6	25.0	19.4	9.0	21.4
수입(억달러)	1486.4	432.9	407.7	422.3	491.8	1754.8	517.5	517.0	529.6	579.7	2143.8
증가율 (%)	7.7	31.4	12.1	10.8	19.4	18.1	19.5	26.8	25.4	17.9	22.2
서비스, 소득, 이전(억달러)	-93.8	-27.7	-33.3	-30.6	-6.8	-98.4	-24.6	-39.0	-31.3	-26.9	-116.6
원/달러 환율(평균)	1251.6	1201.0	1208.9	1175.4	1181.4	1191.7	1172.6	1140.0	1123.4	1116.6	1138.1
회사채수익률(연%, 평균)	6.5	5.4	5.3	5.6	5.4	5.4	5.6	5.7	5.8	6.0	5.8
실업률(%)	3.1	3.6	3.3	3.3	3.4	3.4	3.8	3.7	3.6	3.5	3.6
세계교역량(%)	2.1					4.5					7.5
무역수지(억달러)	103.4	-11.9	43.4	48.6	69.8	149.9	67.9	45.7	37.4	27.3	178.3
통관수출(억달러)	1624.7	430.4	460.5	478.3	569.0	1938.2	593.7	572.4	576.8	617.1	2360.0
증가율 (%)	8.0	20.7	14.4	15.9	25.6	19.3	38.0	24.3	20.6	8.4	21.8
통관수입(억달러)	1521.3	442.2	417.1	429.7	499.2	1788.3	525.9	526.7	539.4	589.7	2181.7
증가율 (%)	7.8	30.9	12.1	10.5	18.1	17.6	18.9	26.3	25.5	18.1	22.0

5. 향후 우리경제의 위협요인

분배우선적 정책 시도에 따른 내수 및 고용부진 가능성

- 총선결과에 여파로 분배개선을 도모하려는 기류가 정치권에 형성되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
- 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30%에 불과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이슈가 노동계시각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노동시장 여건은 더 경직될 것이며 고용감소와 내수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것임.
 - 우선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계획했던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계획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국내고용사정의 악화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높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는 결과만 낳을 뿐임
 - 소비회복 지연이 지지부진한 고용사정과 그에 따른 소득증가 둔화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만약 비정규직 문제가 쟁점화 되어 고용사정이 다시 악화된다면 현재의 내수부진 추세는 장기화될 가능성
 -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5%수준으로 올리려면 매년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약 20.6조원(금융연구원 추정) 정도가 됨.
- 이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는 대략 다음과 같음.
 - 먼저 추가비용만큼의 기업투자위축(-20.6조원)이 발생하나
 - 비정규직 임금인상에 따른 소비지출 증대(20.6조원 x 한계소비성향(= '95~' 03년 평균 약 80.5%) = 16.6조원)가 발생하여,
 - 명목GDP는 약 4조원(명목GDP의 0.6%)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위안화 절상에 따른 원화환율 추가 절상 가능성

- 위안화의 저평가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중국 당국도 환율제도변경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특히 위안화 절상이 중국경기 연착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절상조치가 조기에 취해질 수 있음.
- 위안화 절상은 여타 아시아 통화의 절상을 가져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에 따라 원/달러 환율의 추가절상도 불가피할 전망. 이는 순수출의 감소 경로를 통해 성장률을 둔화시킬 것임
- 하반기 원화환율 예측치를 기본전망 대비 5%절상(엔화환율은 3%절상)시켰을 경우, GDP는 연간 0.2%p하락, 소비자물가는 0.2%p하락하였으며 경상수지는 순수출의 감소로 약 21억달러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됨

〈표 19〉 원화환율 5%절상의 경제적 효과

	2004 3/4	2004 4/4	2004년 연간
GDP(%p)	-0.30	-0.45	-0.20
소비자물가(%p)	-0.27	-0.46	-0.18
경상수지(억달러)	-8.9	-12.2	-21.1

제 4 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1. 경기회복세 지속 여부 불투명

- 최근의 미약한 경기회복세는 조기재정지출 등에 따른 과감한 정부정책과 단기적·기술적 반등에 의한 측면이 강함
 - 금년 1/4분기 재정집행은 예산조기집행을 시행했던 작년 동분기 39.4조원에 비해 4조원이 증가한 43.4조원으로 연간 재정의 27.3% 수준이고 작년 25%에 비해 2.3%p 증가했음
 - 정부가 1/4분기에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8.7만명(청년층: 7.5만명, 취약계층: 9.0만명, 공무원: 2.1만명 등)에게 일자리 및 취업훈련기회를 마련했음에도 3월 실업률은 3.8%, 청년실업률은 8.8% 수준임
- 수출 및 대외경제여건에 의존도가 높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위협요인 상존
 - 중국의 경기과열에 따른 투자억제 강화와 위안화 평가절상, 이에 따른 급격한 원화가치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미국정책금리의 조기인상 가능성 등 잠재적 대외여건 악화 요인 상존
- 내수침체의 원인이 손쉽게 해소될 수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어서 내수침체가 지속될 가능성 존재

- 소비부진 지속 가능성: 고용악화에 따른 소득 감소, 과중한 가계부채 및 대규모의 신용 불량자 존재, 소비기대심리 위축 등
- 투자부진 지속 가능성: 노사관계 불안, 경영권방어를 위한 지분투자 주력, 투자나 기업 가정신을 억제하는 규제 지속, 외국인직접투자 부진, 대중국투자 등 해외투자 증가 등
- 고용부진 지속 가능성: 투자부진 지속, 수출 및 제조업의 고용유발 저하,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창업 둔화, 노사관계 불안 등

2. 반시장적·분배우선적인 정책전환 가능성에 대한 우려 불식

- 총선 이후 정치권의 큰 변화와 더불어 반시장적이며 분배우선적인 좌경성향, 또는 인기영합적인 정책으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국내외 경제주체의 우려 증대
 - 총선의 득표 전략으로서 제시된 여러 당의 공약들중 현실성이 없는 인기영합적, 반시장적 성격이 강한 것들이 많았고
 - 민노당 등의 원내진출로 이해집단의 갈등 문제가 침예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북핵문제 등에 있어 한미공조체계 변화 등의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국내외에서 증폭되어 있는 상황
- 작금의 상황은 전체적인 정치구도 재편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소멸되었으나 국가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오히려 증폭된 모습. 따라서 정부 및 정치지도자들은 큰 틀에서 본 정부의 정책기조변화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함
 - 어떤 정책방향을 지향하더라도 이해집단의 갈등 해소에 있어 인기영합적인 방편이나 소모적인 정치적 쟁점화보다는 법치주의에 기초한 해결을 도모하여야 함
 - 국내외에 정확하게 정책이 지향하는 바를 알림으로써 국가신인도를 제고시켜야하며

복핵문제 등에 있어 한미공조체계 공고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특히 근래 내수침체의 장기화에는 반기업적인 정서에 만연되어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기본적 가치창출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다양한 반시장적 접근이 중요한 원인임을 직시하여야 함
 - 기업은 타파되어야 할 부유층이나 특권층이 전유물이 아니라 시장경제에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곳임.
 - 만약 기업들을 부정적으로 인격화하여 기업활동을 제약하려한다면 고용과 소득창출이라는 본래의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음. 작금의 고용, 투자 부진은 이런 징후로 보아야 함
 - 만약 향후 이런 기본적인 시각에 변화가 없어 국내의 기업활동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 결국 우리기업들의 국내활동 축소와 해외이전은 더 가속화 될 것임
 - 이렇게 본다면 정부는 국내외 기업들이 계속 호소하는 법과 원칙에 바탕을 둔 노사관계, 각종 규제나 제도 등을 시급히 개선 등에 대해 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임

3. 경기부양과 고용창출을 위한 다각적 노력 지속

- 경기회복세 지속 여부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일단 경기부양적 경제정책 기조의 정책 조합을 유지하면서 향후에도 개선조짐이 크게 보이지 않을시 보다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 경기회복과 고용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
- 거시정책에 우선해 경직적인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투자애로요인 해소 등의 미시정책도 동반한 정책조합으로 경기부양 및 고용창출 유도
- 무조건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장으로 기업의 비용증가와 고용 악화 우려

-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는 고용구조의 원인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 원인을 해소하지 않는 채, 노동계의 시각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은 내수부진 장기화와 함께 고용창출을 악화시킬 수도 있음
- 고용창출을 위해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의 상승은 자발적으로 억제 노력 필요. 4월 16일 산업자원부의 “2003년 노동생산성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전체의 생산성은 8.1%인데 반해 시간당 명목임금은 8.9% 상승
- 재정정책의 경우 예정된 조기집행의 충실한 이행과 필요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경편성 고려해야함.
 - 추경예산 편성시 단순히 단기적 공공부분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고용 창출, 성장잠재력 확충,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지역균형발전, 동북아 중심 국가 건설 등에 도움을 주는 사회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함
- 총수요에 의한 물가상승압력이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수침체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정책금리의 인하를 고려할 여지가 있음
 - 최근의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총수요압력에 의한 수요견인 (demand pull)형 물가상승이 아니라 유가나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의한 비용상승 (cost push)형 물가상승임
 - 반면 경기 침체지속으로 소득이 늘지 않고 가계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정책금리의 인상은 가계의 금융부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환율정책의 경우,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여건에 따른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의 변동을 용인하여야 함. 아울러 외환보유고 등을 동원한 직접적인 시장개입보다는 외채상환 규모나 시기를 조절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 활용
 -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 상승은 단기적으로 정부는 수출금융을 강화하는 동시에 달러화의 급락을 완화하고

- 장기적으로는 우리기업들이 환율만 쳐다보는 천수답식 경영이 아니라 수출제품의 비가격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 요망

4. 한국은행에 금융시장 안정기능 부여

- 2002년 이후 실물경제의 부진은 가계신용 악화를 통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졌고 최근에는 중소기업 여신부실화 징후가 나타나면서 향후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그 동안 감독당국의 대응조치는 개별기관의 문제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여 퇴출을 기피하고 과거와 같은 관치수단을 이용하여 금융권의 유동성을 반강제적으로 동원하여 대응하는 방식을 따랐음
- 이는 한편으로는 유동성공급 등을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해야 되는 금감위나 재경부가 유동성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파산이나 퇴출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우려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재원을 강제적으로 조성하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점임
- 이는 97년 한국은행법의 개정으로 ‘금융안정’의 조항이 한국은행의 목적으로부터 제외된 이후, 금융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
- 1997년 한은법 개정 이후, 최종대부자로서의 기능이 ‘긴급여신’ 규정으로 축소되어 금융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음
- 따라서 금융시장의 안정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의 파산이나 퇴출 가능성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한국은행법의 개정을 통해 선언적 의미에서 ‘금융시장안정’을 한국은행의 목적에 명시함으로써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을 회복해야 함
 - 또한 금감위나 재경부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유동성공급 문제를 한국은행에게 맡기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보다 노력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부실한 금융기관의 파산이나 퇴출 등을 허용해야 함
 - 또한 금융시장안정에 영향이 큰 감독관련 사안의 처리에 통화당국이 조기에 자동적으로 개입하여 마땅한 시장안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함

부 록

주요경제통계

※ 주요경제통계 ※

경제성장률 · 소비 · 투자								
연월	경제성장률		1인당 GNI US \$	소비		투자		
	GDP	제조업		민간	정부	총고정투자	설비	건설
	전년동기 대비 (%)		전년동기대비 (%)					
2001년	3.8	2.2	10,162	4.9	4.9	-0.2	-9.0	6.0
2002년	7.0	7.6	11,493	7.9	6.0	6.6	7.5	5.3
2003년	3.1	4.8	12,646	-1.4	3.7	3.6	-1.5	7.6
2001년 2/4	3.7	4.1		4.4	3.3	-3.5	-10.6	0.8
3/4	3.4	0.0		5.6	6.4	-0.5	-14.2	9.6
4/4	4.6	1.3		7.6	6.2	6.2	-1.3	10.7
2002년 1/4	6.5	5.2		9.8	7.6	7.7	3.3	11.0
2/4	7.0	6.2		8.7	7.3	7.3	8.0	6.0
3/4	6.8	7.4		7.8	5.3	2.4	9.1	-2.4
4/4	7.5	11.4		5.5	4.2	9.1	9.6	8.4
2003년 1/4	3.7	5.1		0.3	4.0	4.6	1.9	8.0
2/4	2.2	2.6		-1.8	3.7	3.7	-0.6	7.3
3/4	2.4	3.3		-1.9	3.5	2.6	-5.0	7.9
4/4	3.9	8.0		-2.2	3.5	3.6	-2.4	7.4

무역 · 국제수지								
연월	무역				국제수지		외환 보유액 ^d (기말)	대미환율 (기말)
	수출(FOB)		수입(CIF)		상품	경상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	억 달러		원/달러	
2001년	1,504.4	-12.7	1,411.0	-12.1	134.9	80.4	1,028.2	1,326.1
2002년	1,624.7	8.0	1,521.3	7.8	147.8	54.0	1,214.1	1,200.4
2003년	1,938.2	19.3	1,788.3	17.5	221.6	123.2	1,553.5	1,197.8
2003년 1월	143.2	25.8	144.9	28.0	7.9	-4.6	1,229.1	1,170.5
2월	133.4	21.0	138.6	32.3	5.0	5.2	1,239.9	1,186.8
3월	153.8	16.1	158.7	32.4	-0.3	-10.7	1,238.2	1,252.9
4월	157.3	19.2	147.6	17.5	13.6	-2.6	1,236.2	1,213.1
5월	146.8	3.5	135.2	6.5	16.5	10.8	1,283.4	1,205.3
6월	156.6	21.4	134.3	12.5	27.5	16.0	1,316.6	1,193.1
7월	154.4	15.2	149.0	14.3	14.6	3.5	1,329.1	1,180.0
8월	153.8	10.1	135.4	5.3	22.9	13.0	1,361.9	1,178.5
9월	170.2	22.4	145.3	11.9	30.7	21.1	1,415.4	1,150.2
10월	189.3	25.5	165.4	19.7	29.4	24.4	1,433.2	1,173.3
11월	182.4	20.0	157.6	12.6	28.0	27.7	1,503.4	1,203.6
12월	197.3	31.3	176.2	22.0	26.1	24.5	1,553.5	1,197.8
2004년 1월	190.0	32.7	161.2	11.2	29.8	23.4	1,574.5	1,174.9
2월	193.4	45.0	173.9	25.5	31.8	30.6	1,630.1	1,176.5
3월	214.5	39.5	190.7	20.1			1,635.6	1,153.6

1) 가용외환보유액 기준

물가 · 실업 · 이자율

연월	물가2)		실업률 (계절조정)	제조업 명목임금	통화3)		회사채 수익률	추가지수 80.1.4=100
	생산자	소비자			신M2	M3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연%, 평균	기간평균	
2001년	-0.5(-2.5)	4.1(3.2)	3.8	5.8	6.9	9.6	7.04	572.8
2002년	-0.3(2.3)	2.7(3.7)	3.1	11.9	11.5	12.9	6.59	757.0
2003년	2.2(3.1)	3.6(3.4)	3.4	8.7	7.9	8.8	5.43	679.8
2003년 1월	2.8(0.7)	3.8(0.6)	3.5(3.1)	41.4	13.9	13.1	5.48	631.0
2월	2.8(1.3)	3.9(1.2)	3.7(3.0)	-5.6	13.3	12.5	5.25	591.6
3월	3.3(2.3)	4.5(2.4)	3.6(3.1)	9.2	11.9	11.7	5.44	550.8
4월	1.9(1.7)	3.7(2.2)	3.3(3.2)	8.0	10.3	10.2	5.39	585.9
5월	1.0(1.2)	3.2(2.0)	3.2(3.4)	6.9	9.1	9.4	5.26	613.5
6월	1.1(0.7)	3.0(1.8)	3.3(3.6)	7.3	7.9	9.1	5.28	663.2
7월	1.6(0.9)	3.2(1.7)	3.4(3.6)	4.9	7.0	8.7	5.65	703.5
8월	1.9(1.3)	3.0(2.1)	3.3(3.5)	12.7	6.7	7.9	5.87	731.7
9월	2.1(1.7)	3.3(3.0)	3.2(3.5)	5.9	5.8	7.5	5.24	742.3
10월	2.2(2.0)	3.7(3.1)	3.3(3.7)	6.9	3.8	5.9	5.18	756.5
11월	2.4(2.4)	3.4(3.0)	3.4(3.7)	10.8	3.2	5.3	5.53	789.1
12월	3.1(3.1)	3.4(3.4)	3.6(3.5)	3.2	3.0	5.0	5.61	801.2
2004년 1월	3.8(1.4)	3.4(0.6)	3.7(3.3)		2.4	4.9	5.67	845.5
2월	4.5(2.6)	3.3(1.1)	3.9(3.3)		2.6	5.1	5.63	867.5
3월	4.4(3.6)	3.1(2.1)	3.8(3.4)				5.37	875.6

주 : 2) ()는 전년말월대비증가율. 3) 평잔기준

산업활동

연월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전산업	평균 가동률(%)	도소매 판매액	소비재 출하4)	국내기계 수주5)	설비투자 주계	건설 수주	건설기 성		
								공공	민간	
전년동기대비(%)										
2001년	0.7	75.3	6.6	2.8	-1.0	-2.3	22.1	10.0	4.4	14.6
2002년	8.0	78.4	8.3	8.1	21.0	1.6	33.0	11.2	-8.1	24.5
2003년	5.1	78.3	-1.3	-5.9	-8.5	-4.6	22.5	18.8	14.8	22.2
2003년 1월	3.9	78.7	6.4	-0.4	4.2	-7.7	23.6	21.5	26.4	17.3
2월	9.9	79.0	0.4	-3.0	12.4	-3.6	45.0	19.9	7.8	26.4
3월	5.0	77.9	-2.2	-5.2	-42.1	0.1	-30.4	20.6	7.9	30.3
4월	2.1	77.7	-2.8	-6.8	-0.7	-4.6	8.1	15.5	6.6	22.3
5월	-0.6	76.3	-1.9	-11.8	3.1	-8.8	32.6	18.5	10.2	24.0
6월	8.6	78.0	-0.4	-4.9	-11.6	2.7	112.7	20.9	10.5	28.1
7월	1.0	74.7	-1.9	-4.3	-12.4	-11.1	68.2	17.1	11.8	21.1
8월	1.6	77.2	-2.6	-9.9	-23.3	-7.8	38.6	23.2	19.8	26.5
9월	7.0	78.9	-2.9	-6.4	18.5	-2.2	39.5	13.7	11.0	16.8
10월	7.8	81.1	-1.6	-6.4	4.7	-3.8	16.7	18.0	21.0	17.6
11월	4.9	79.6	-3.7	-9.2	-10.8	-8.3	-14.8	12.2	16.3	11.7
12월	10.9	80.4	-1.2	-2.7	-9.1	-1.6	6.7	24.4	24.5	26.7
2004년 1월	4.6	80.4	-2.3	-8.5	12.9	-3.2	-14.3	6.1	-10.5	16.9
2월	16.6	83.5	2.4	0.8	12.7	2.1	-23.9	5.4	-4.3	11.9

주 : 4) 내수용 5) 내수용, 선박제외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권1쇄 인쇄/2004년 4월 19일
1권1쇄 발행/2004년 4월 22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좌승희
편집인/허찬국

등록번호/제13-53
(150-75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 3771-0001 (직통) 3771-0057 팩시밀리 785-0270 ~ 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4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SN 1229-5396

3,000 원